

"국제정치 심장부 워싱턴 정가에 북핵 아닌 한반도이슈 띄우겠다"

아태전략센터 김희은 대표

유준호 기자 입력 : 2020.07.23 17:27:21 수정 : 2020.07.23 19:16:50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국가 현실에 맞는 개별 외교, 안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거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김희은 대표(41·사진)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인 최초로 다국적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를 세운 것이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김 대표는 이론과 가설만이 난무하는 국제 정치에 실용의 가치를 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현안과 관련해 너무 훌륭한 학술적인 분석이 오고 가지만 대부분 탁상 공론에 그친다"며 "하루하루 밥벌이를 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쉽게 풀어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이슈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워싱턴 사람들 머릿속에 코리아는 `북한`과 `핵`밖에 없다"며 "이슈의 중심이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가 돼야 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이슈 중심에 `대한민국(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실에 근무하며 외교·안보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3년에는 미국 국무부 국제지도자프로그램(IVLP) 참가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